<h1>나 혼자만 레벨업-82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g3796f400af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82화</p>  
<p>'던전 안에서 바람이 불다니?'</p>  
<p>진우가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동굴 깊숙한 곳에서부터 불어오는 스산한 바람을 느낄 수 있었다.</p>  
<p>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.</p>  
<p>동시에 진우는 바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달았다.</p>  
<p>'단순한 바람이 아니야.'</p>  
<p>마력의 파장.</p>  
<p>A급 던전의 보스가 내뿜는 강대한 마력이 실체화되어 진우의 몸에 닿은 것이다.</p>  
<p>S급 던전이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다는 사실을 떠올리면, 이 마력의 주인은 진우가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마수들 중 가장 높은 레벨이라 할 수 있었다.</p>  
<p>'A급 던전의 보스...'</p>  
<p>놈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졌다.</p>  
<p>그리고 기회가 된다면...</p>  
<p>진우는 털끝이 쭈뼛쭈뼛 솟아오를 정도의 오싹함에 몸서리치면서도, 한편으로는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다.</p>  
<p>사냥꾼의 본능이라고 할까.</p>  
<p>강한 맹수 앞이라면 총구를 들이대 보고 싶어지는 것이 사냥꾼, 즉 헌터의 마음 아닌가.</p>  
<p>그때.</p>  
<p>툭.</p>  
<p>뒷사람이 진우와 어깨를 부딪쳤다.</p>  
<p>"에이, 앞에 빨리빨리 좀 갑시다."</p>  
<p>이성구는 눈살을 찌푸리며 볼멘소리를 냈다.</p>  
<p>A급 던전 안은 넓다.</p>  
<p>앞사람을 피해 돌아갈 공간이 충분히 있었다.</p>  
<p>하지만 앞에 가만히 서서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이는 신참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.</p>  
<p>그래서 창피나 줘 볼까 하고 한번 부딪혀 본 건데...</p>  
<p>'이 새끼 뭐야. 지가 무슨 돌기둥이야?'</p>  
<p>막상 부딪치고 나니 신참이 아니라 자신이 밀려났다.</p>  
<p>짜증이 솟구칠 수밖에.</p>  
<p>'E급이란 놈이 뭐가 이렇게 단단해?'</p>  
<p>그래 봐야 E급이다.</p>  
<p>자신은 C급.</p>  
<p>C급 헌터들 중에서도 실력이 떨어지는 편이라 채굴 작업에 동원되고 있긴 하지만, 그래도 E급 앞에서 기가 죽어서야 쓰나?</p>  
<p>그런데 신참은 미동도 없었다.</p>  
<p>이성구의 눈매가 가늘어졌다.</p>  
<p>'어쭈, 이놈 봐라?'</p>  
<p>슬슬 약이 오르기 시작한 이성구가 눈을 부릅뜨고 목에다 힘을 주었다.</p>  
<p>"이봐, 부딪혔으면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냐?"</p>  
<p>슥.</p>  
<p>진우가 돌아보았다.</p>  
<p>흠칫 놀란 이성구는 한 발짝 물러섰다.</p>  
<p>'헉!'</p>  
<p>진우의 눈에서 광채가 번득이는 듯했다.</p>  
<p>숨이 콱 막혀 오는 기분을 느끼며 이성구가 당황하고 있을 때, 진우의 입이 열렸다.</p>  
<p>"죄송합니다."</p>  
<p>"아, 아니..."</p>  
<p>떠듬거리던 이성구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다.</p>  
<p>"그럴 수도 있지... 요."</p>  
<p>생각지도 못하게 존댓말까지 붙이게 된 이성구가 벌게진 얼굴을 푹 숙이고는 진우 옆을 빠르게 지나쳐갔다.</p>  
<p>"휴우-"</p>  
<p>이성구는 신참과 거리가 좀 멀어지고 나서야 겨우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.</p>  
<p>'뭐야, 저 눈빛은? 거기다 왜 웃고 있는 건데?'</p>  
<p>잠깐 눈이 마주쳤던 것뿐인데 몸이 뻣뻣하게 경직되어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.</p>  
<p>눈을 내리깔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자존심이었다.</p>  
<p>'...저거 진짜 E급 맞나?'</p>  
<p>부딪혔을 때도 그렇고, 살벌한 시선도 그렇고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.</p>  
<p>에라, 모르겠다.</p>  
<p>상념을 떨치려는 듯 세차게 고개를 가로저은 이성구는 바삐 걸음을 옮겼다.</p>  
<p>"이런."</p>  
<p>순식간에 자신을 앞질러 가 버린 이성구를 보고 진우는 옆머리를 긁적거렸다.</p>  
<p>'보스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여서...'</p>  
<p>그만 겁을 준 것처럼 되고 말았다.</p>  
<p>수련이 부족한 거다, 수련이.</p>  
<p>진우는 민감하게 반응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앞서가는 채굴 팀원들의 뒤를 쫓아갔다.</p>  
<p>합류는 금방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행렬의 끝에 붙어 팀원들과 보폭을 맞춰 걸었다.</p>  
<p>'내 속도로 걸으면 아무도 못 따라오니까.'</p>  
<p>자신이 맞춰 줘야 했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스급 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마력의 파장이 커졌다.</p>  
<p>'감각 스탯이 많이 오르긴 올랐구나.'</p>  
<p>던전의 가장 안쪽. 보스방에 있을 마수의 기운을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도 생생히 느낄 수 있다니.</p>  
<p>덕분에 괜히 심장의 박동이 빨라졌다.</p>  
<p>'이래서야 작업에 집중할 수나 있을까?'</p>  
<p>자문에 대답이라도 해 주려는 듯 앞쪽에서 우렁찬 기합 소리가 들려왔다.</p>  
<p>"으차! 으차!"</p>  
<p>채굴팀보다 한발 먼저 던전으로 들어온 수거팀은 벌써 작업에 한창이었다.</p>  
<p>거대한 마수의 사체를 밧줄로 묶어 끌고 가는 중이었다.</p>  
<p>"하나, 둘!"</p>  
<p>"여차!"</p>  
<p>전투계열 헌터들의 완력이 워낙 좋다 보니 별다른 기구의 도움 없이도 작업이 척척 이뤄졌다.</p>  
<p>진우는 상급 던전의 공략 과정을 하나씩 눈에 새겼다.</p>  
<p>'일단 공략팀이 앞장서 들어가 보스를 제외한 모든 마수들을 처치한다.'</p>  
<p>그 뒤 수거팀이 마수들의 사체를 끌어내고, 마지막으로 채굴팀이 동굴 벽면에 있는 광석들을 캐낸다.</p>  
<p>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느 한 과정도 빠트릴 수 없었다.</p>  
<p>마정석과 마석은 물론이고,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상급 마수의 사체 또한 큰돈이 되니까.</p>  
<p>'뼈, 가죽, 살 등등 상급 마수의 사체는 뭐 하나 버릴 게 없다지?'</p>  
<p>그게 하급 던전에서 볼 수 있는 마수들과 상급 던전에서 나오는 마수들의 차이점이었다.</p>  
<p>그렇게 던전 안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싹 다 긁어내고 나서.</p>  
<p>'보스를 처치하고 게이트를 닫는다.'</p>  
<p>이 네 가지 과정이 오롯이 끝나야 상급 던전을 완벽히 클리어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.</p>  
<p>적어도 길드 입장에선 그랬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'저런 단순 노동이라면 내 병사들로도 충분하지 않을까?'</p>  
<p>땀을 뻘뻘 쏟는 수거팀 헌터들을 지나쳐 가며, 진우는 문득 그런 생각을 떠올렸다.</p>  
<p>실제로 업이 잘 된 그림자 병사들의 힘은 전원 C급 이하로 구성된 수거팀 헌터들보다 훨씬 뛰어났다.</p>  
<p>병사들을 나눠 한쪽은 사냥, 한쪽은 수거, 한쪽은 채굴을 담당하게 만든다면...</p>  
<p>'어쩌면 정말로 혼자서 상급 던전을 공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.'</p>  
<p>진우는 흡족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여기 온 목적은 답사.</p>  
<p>시간 내서 와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.</p>  
<p>"성 씨, 뭐 좋은 일이라도 있는겨?"</p>  
<p>팀장이 옆에서 말을 붙여 왔다.</p>  
<p>상급 던전 경험이 전혀 없을 E급 헌터가 조용히 웃고 있으니 이유가 궁금했나 보다.</p>  
<p>"생각했던 것보다 마수들이 너무 큰 게 기가 막혀서요."</p>  
<p>대충 얼버무린 진우의 대답에 만족했는지, 팀장은 기억을 더듬으며 맞장구를 쳐 주었다.</p>  
<p>"그런 거였어? 하기야 나도 처음 들어 왔을 때는 입이 쩍 벌어져서 다물어지지가 않았지."</p>  
<p>말이 나온 김에 진우는 몇 가지를 물었다.</p>  
<p>"일반 마수는 다 제거했다고 해도 아직 여기 보스는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?"</p>  
<p>"그렇지. 보스를 죽이면 게이트가 닫혀 버리니까."</p>  
<p>수거와 채굴 작업을 모두 끝낼 때까지는 보스를 잡을 수 없다는 대답이었다.</p>  
<p>"만약 보스가 보스방을 뛰쳐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?"</p>  
<p>"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... 그렇게 되면 안에 남아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죽겠지."</p>  
<p>당연하다면 당연한 소리였다.</p>  
<p>던전을 나간 공격대는 보스 레이드까지 휴식을 취하다 올 거고, 채굴팀이나 수거팀 헌터들에게 A급 던전 보스를 상대할 만한 힘은 없을 테니 말이다.</p>  
<p>하지만 던전 브레이크가 시작되기 전에는 보스가 거의 보스방에서만 머무른다는 것이 상식이었다.</p>  
<p>그래서인지 팀장의 얼굴에도 별로 두려운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"그렇게 끔찍한 놈이 등 뒤에 있는데도 안 무서우세요?"</p>  
<p>"전혀."</p>  
<p>배 팀장은 단호했다.</p>  
<p>"내가 헌터스에서 일한 3년 동안 그런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. 성 씨도 너무 걱정하지 마."</p>  
<p>진우는 자신의 어깨를 툭 치며 씩 웃는 배 팀장을 보고서 잠깐이지만 부럽다는 생각을 했다.</p>  
<p>'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라더니.'</p>  
<p>가만히 있어도 보스의 마력 파장에 몸이 떨려 오는 수준인데.</p>  
<p>아무래도 보스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자신 혼자뿐인 듯했다.</p>  
<p>"오, 여기서부터구만!"</p>  
<p>배 팀장은 동굴 벽면에 나 있는 마석밭을 발견하고는 기뻐했다.</p>  
<p>노련한 채굴팀 헌터들은 누가 시킬 새도 없이 차례대로 마석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.</p>  
<p>툭, 툭.</p>  
<p>짐을 내려놓고 곡괭이를 들었다.</p>  
<p>진우도 마석밭 끄트머리에 가서 섰다.</p>  
<p>'이걸 그냥 내려치면 되는 건가?'</p>  
<p>무조건 힘으로 내려쳤다가는 마석이고 곡괭이고 다 부서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앞섰다.</p>  
<p>'어떡한다?'</p>  
<p>바로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던 진우.</p>  
<p>그의 눈에 배 팀장으로부터 베테랑 채굴팀원이라 불렸던 목진수의 모습이 들어왔다.</p>  
<p>휘익! 콱! 휘익! 콱!</p>  
<p>목진수는 리듬감 있게 마석을 캐내고 있었다.</p>  
<p>그가 벽을 내리칠 때마다 투둑, 투둑 소리가 나며 마석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.</p>  
<p>'과연...'</p>  
<p>베테랑이라 불릴 만한 솜씨였다.</p>  
<p>그는 주변 동료들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를 보여 주고 있었다.</p>  
<p>진우의 눈빛이 빛났다.</p>  
<p>느려진 시간 속에서 진우는 목진수의 자세와 호흡, 근육의 움직임 등을 배워 나갔다.</p>  
<p>목진수의 효율적인 동작이 진우의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반복 재생되었다.</p>  
<p>'알겠다.'</p>  
<p>감이 잡혔다.</p>  
<p>진우는 곡괭이를 집어 들었다.</p>  
<p>마치 목진수가 거울에 비친 듯 비슷한 자세였다.</p>  
<p>휘익! 콰각! 휘익! 콰각!</p>  
<p>같은 동작이라도 진우의 힘은 목진수가 범접할 수 없는 수준.</p>  
<p>진우가 벽면을 내려칠 때마다 마석들이 덩어리째 데굴데굴 떨어져 내렸다.</p>  
<p>휘익! 콰각! 휘익! 콰각!</p>  
<p>끝 쪽에서 들려오는 시원한 소리.</p>  
<p>채굴팀 헌터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.</p>  
<p>"어... 어이."</p>  
<p>"왜?"</p>  
<p>"저기 좀 봐 봐."</p>  
<p>"헉!"</p>  
<p>"쟤 뭐야?"</p>  
<p>채굴팀 헌터들이 하나둘 손을 멈추고 멍하니 진우를 바라보았다.</p>  
<p>쉼 없이 움직이던 목진수의 손도 멈추었다.</p>  
<p>'...'</p>  
<p>다들 할 말을 잃었다.</p>  
<p>던전 광부일은 처음이라던 E급 헌터가 숙련된 동작으로 마석밭을 박살 내고 있는 것 아닌가!</p>  
<p>"아니, 이 사람들아! 일하라고 불러왔더니 다들 이렇게 넋 놓고 있으면 어떡해!"</p>  
<p>마석밭의 규모를 장부에 적어 내려가던 배 팀장이 채굴팀 전원의 태업에 놀라 달려왔다.</p>  
<p>"팀장님, 저것 좀 봐요."</p>  
<p>"뭘?"</p>  
<p>배 팀장이 빼꼼 고개를 내밀었다.</p>  
<p>그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"헛!"</p>  
<p>팀장도 마찬가지.</p>  
<p>남들보다 세 배는 빠른 진우의 작업 속도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.</p>  
<p>"팀장님, 쟤 오늘이 처음이라고 안 했어요?"</p>  
<p>"...했었지."</p>  
<p>진우의 정체를 궁금해하던 이성구가 불쑥 끼어들었다.</p>  
<p>"저 사람 E급은 맞아요?"</p>  
<p>"당연히 자격증 확인 다 했지. 내가 초면인 헌터를 신분증도 안 보고 팀으로 받았을까 봐?"</p>  
<p>"그럼 저건 어떻게 된 겁니까?"</p>  
<p>"..."</p>  
<p>묵묵히 진우를 지켜보던 배 팀장이 상기된 얼굴로 침을 꼴깍 삼켰다.</p>  
<p>"분명... 성 씨는 하늘이 내리신 광부인 거여."</p>  
<p>어쩐지 면접을 볼 때부터 탄탄한 가슴근육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니.</p>  
<p>'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본다니까.'</p>  
<p>배 팀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갔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삐빅, 삐빅, 삐빅.</p>  
<p>배 팀장의 손목시계에서 알람이 울렸다. 배 팀장은 손목을 들어 시계를 확인했다.</p>  
<p>'아이고, 시간이 벌써 이렇게...'</p>  
<p>어느덧 점심시간이었다.</p>  
<p>"다들 밥 먹고 오자고."</p>  
<p>"옙!"</p>  
<p>다들 장비를 놓고 손을 털었다.</p>  
<p>팀원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나가는데도, 진우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배 팀장이 슬며시 다가가 물었다.</p>  
<p>"성 씨는 안 가?"</p>  
<p>"저는 생각이 없어서요."</p>  
<p>"그래도 밥 안 먹고 어떻게 일하려고 그래?"</p>  
<p>"괜찮습니다. 아침을 늦게 먹기도 했고."</p>  
<p>"그래? 그럼 어쩔 수 없지."</p>  
<p>같이 밥이라도 먹으면서 서로의 앞날에 대해 여러 가지 진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지만, 그렇다고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?</p>  
<p>배 팀장은 아쉬워하며 게이트 쪽으로 돌아섰다.</p>  
<p>그 순간 진우의 입꼬리가 올라갔다.</p>  
<p>진우는 멀어지는 팀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'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지.'</p>  
<p>겨우 혼자 남게 되었다.</p>  
<p>채굴팀도, 수거팀도 모두 던전을 빠져나갔다.</p>  
<p>앞으로 약 1시간의 자유.</p>  
<p>던전 안쪽에 숨어있는 보스급 마수를 찾아갈 절호의 찬스였다.</p>  
<p>진우는 곡괭이를 내려놓았다.</p>  
<p>그리고 보스방이 있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.</p>  
<p>마수의 기운이 진득하게 느껴졌다.</p>  
<p>'한번 보고 오기만 하자.'</p>  
<p>뭘 어떻게 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었다.</p>  
<p>그냥 보스가 한번 보고 싶었다.</p>  
<p>두근, 두근, 두근.</p>  
<p>보스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뛰었다.</p>  
<p>진우는 떨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걸음을 옮겼다. 보스의 기운을 따라 동굴의 안쪽을 향해 걸었다.</p>  
<p>얼마나 걸었을까?</p>  
<p>한참 걷다가 보니 곧 거대한 방 하나가 나왔다.</p>  
<p>보스방이었다.</p>  
<p>동굴 통로도 무지막지하게 넓었는데, 보스방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컸다.</p>  
<p>상급 던전은 다 이렇게들 스케일이 큰가?</p>  
<p>하는 의문이 들었을 무렵.</p>  
<p>보스를 발견하고서 이번 던전은 클 수밖에 없었겠구나, 자동으로 납득이 되었다.</p>  
<p>'저런 놈이 밖으로 나가려면...'</p>  
<p>눈이 하나밖에 없는 거대한 인간형 마수가 제일 안쪽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.</p>  
<p>진우의 눈이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손에 넣은 어린아이처럼 빛났다.</p>  
<p>'거인형 마수.'</p>  
<p>들어 본 적은 많았지만 실물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.</p>  
<p>거인형 마수는 몸뚱이가 커서 사체를 옮기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던전 브레이크 때를 제외하면 볼 기회가 전혀 없는 놈이었다.</p>  
<p>그런 놈 앞에 서 있으니 가슴이 설렜다.</p>  
<p>'강한 놈이다.'</p>  
<p>털이 곤두설 정도니까.</p>  
<p>하지만 어째서인지 잡기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.</p>  
<p>'지금의 나라면.'</p>  
<p>충분했다.</p>  
<p>그렇게 생각한 순간 침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.</p>  
<p>꼴깍.</p>  
<p>이놈을 잡으면 경험치는 얼마나 떨어질까?</p>  
<p>악마성에서 그 고생을 하고 일주일간 15레벨 정도를 올렸다.</p>  
<p>그런데 보스급 하나를 잡고 2, 3레벨을 올릴 수 있다면...</p>  
<p>'이러면 안 되는데.'</p>  
<p>안 된다고 되뇌면서도 진우의 두 손에는 어느새 '바루카의 단도'와 '나이트 킬러'가 소환되어 있었다.</p>  
<p>거기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앞에 두고 갈등하는 얼굴도 아니었다.</p>  
<p>그냥 콱 질러 버려?</p>  
<p>입가로 자그마한 흥분이 흘렀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웃으며 고민하는 진우의 등 뒤에서 날 선 여성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.</p>  
<p>"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?"</p>  
<p>=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